

# 소질병의 조기발견

홍성사료 제공

가축은 말을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체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하더라도 말로 아픔을 호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체상에 일어난 이상상태는 자연스럽게 외모와 거동에 나타나므로 사육자가 일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 관찰만 한다면 질병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상태를 능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육자가 소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사육하는 젖소를 가까이 접촉하고 평상히 건강할때의 여러가지 개체적 특징들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젖소에 있어서 병적 이상상태가 외모와 태도에 반영되어 나타날 무렵에는 이미 그 병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때가 많으므로 특히 일상시의 관찰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사육자가 가축의 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얻는 잇점을 많다. 즉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용이해지며, 병을 발생초기에 치료할 수 있어서 질병이 빨리 회복되며, 치료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젖소의 경제적 능력을 보다 빨리 회복 시킬 수 있다.

한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특히 전염병)이 건전한 다른 동물에 전염되기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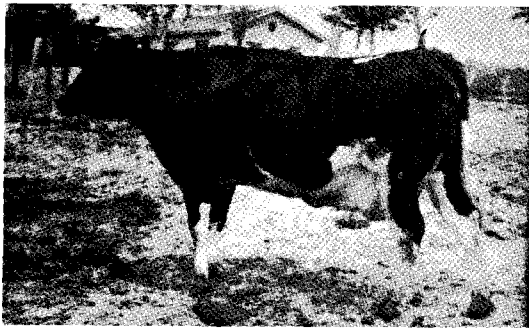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각종 치료용의 약품을 별다른 통제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목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가치료(自家治療)가 성행되고 있는데, 실로 많은 폐단과 문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전문적 수의학 지식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소의 병을 목부가 치료할 수 있다는 축주의 그릇된 관념은 하루속히 버려야한다. 또한 소의 사양 기술과 치료 기술을 결코 동일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젖소의 병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축주는 항상 수의사와 함께 협의하고 수의사의 협력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목장의 수익성은 소와 더불어 일하는 축주나 사육자들의 지혜로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젖소의 병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축주는 항상 수의사와 함께 협의하고 수의사의 협력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목장의 수익성은 소와 더불어 일하는 축주나 사육자들의 지혜로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또 젖소에서 발생하는 병적 이상 상태를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축주나 사육자들이다. 젖소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태의 변화를 기술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행동의 변화**



체내에서 어떠한 병적 이상이 일어날때 외모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이다.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 기운이 쇠퇴하고 활기가 없는 눈초리, 방목장이나 운동장에서 같은 젖소의 무리와 동떨어져 홀로 침울하게 서있는 모습, 누운채 기립이 곤란한 상태, 포유시간에 식욕을 느끼지 않는 송아지, 암소의 성질이 횡폭해지고 황소 체격으로 변하는 경우, 물통을 씹으며 빙글빙글 선회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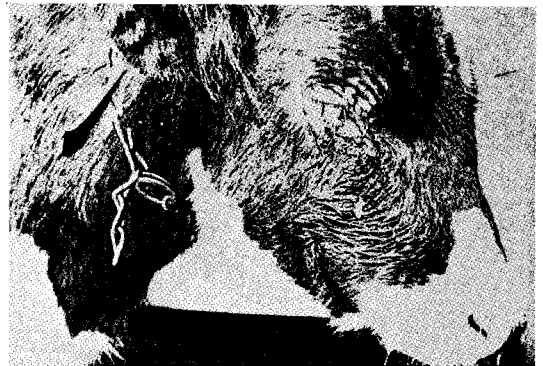
쓰러지고 치료를 할때 매우 신경질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소, 흙을 핥아 먹거나 나무조각을 씹는 소 등은 건강상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표시이다.

이렇게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변화는 항상 젖소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애정으로 관리하는 사육자들에게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다.

**눈모양의 변화**

모든 동물은 그 눈빛에 감정을 담고 있다. 사람은 희로애락과 고통의 감정을 안면에 나타내는 것이 상례이지만, 동물에서는 눈빛을 보아 건강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건강한 젖소의 눈은 티없이 맑고 서늘해 보이며, 眼臉(눈꺼풀)은 긴장력이 있고 탄력성있



게 보이고, 안구의 운동과 안검이 닫히고 뜨이는 개폐운동이 매우 건전하고 활달하다.

눈의 변화로써 대략 다음과 같은 이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국소적으로 상피가 상하고 탈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은 변화는 습진, 피부염, 외상이(蠶), 음벌레, 버짐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안구에 찌발이 서있고 눈에 안전성이 없으며 날카로운 느낌을 보일때에는 모종의 흥분 상태에 빠져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소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젖소는 대개 발정중이거나 충격을 받아 놀란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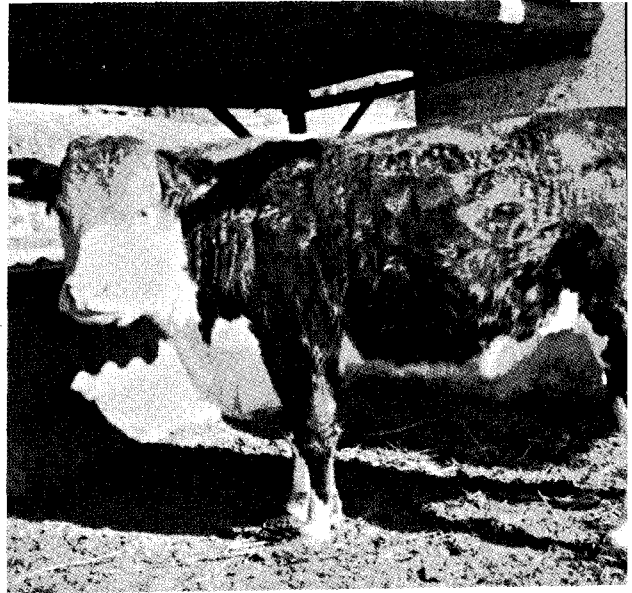
2) 눈에 빛이 없어지고 안구운동에 민활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병적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욕부진에 빠지는 각종 질병,, 즉 식체, 창상성 제2위염, 중독, 열성질환, 케토시스(Ketosis)등을 의심할 수 있다. 눈에 우울하고 걱정스런 표정을 담고 있는 소는 어떤 통성질환, 즉 창상성 제2위 복막염·창상성 심장질환·부제등을 앓고 있으며, 분만전 진통기에도 눈에는 매우 우울한 표정이 지어진다.

3) 안구가 가늘게 진동하고 동공이 산대되며 안검의 운동반사가 없어지는 등의 진상은 열사병, 신경형케토시스, 유열등 대사성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다.

## 체표면의 변화

### 1. 피모

일반적으로 사양관리가 잘되어 있어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한 젖소의 피모는 윤기가나서 반질 반질하며 털의 길이가 짧다. 홀스타인 종(Holstein)에서는 검은털과 흰털의 경계선이 선명하다. 그러나, 사양관리가 불량하고 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소와 기타 만성질환이 있는 젖



소의 경우에는 피모의 광택이 없어지고 거칠어지며 딱딱한 느낌이 있고 불결해 보인다.

또, 털갈이는 하는 환모기에 이르러서도 털갈이가 늦어지고, 털갈이가 불량한 것도 건강상 지장이 있는 소이다.

환모기가 아닌 시기에 볼수 있는 탈모증은 주로 심한 영양장애, 장내기생충의 기생, 폐충의 기생, 폐염 및 옥도정기, 수은제, 비소제 등의 약품 중독증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국소적으로 상피가 상하고 탈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은 변화는 습진, 피부염, 외상이(蠶), 음벌레, 버짐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피부 및 점막의 색깔

피부는 색깔로는 붉은 색의 충혈부, 검붉은 색, 황색, 창백한 색깔등 피부색의 변화를 주의해서 본다. 흰 피부에 생긴 붉은 색은 염증 때문에 발생한 충혈인 경우가 많다.

젖소에서는 외음부, 유방, 지간부(발가락 사이)의 피부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는 색의 변화를 잘 알아 볼 수 있다. 피부에 생긴 검붉은

반점은 타박상에 의한 피하출혈이며, 유방에는 피저성 유방염 등에서 볼 수 있다.

전신적 질병에 있어서는 구강내의 점막, 눈의 점막(결막), 질의 점막등 여러 군데의 점막에서 색깔의 변화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전신질환 중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점막이 검붉은색을 띠며, 간장장애, 타일레리라병, 혈액의 질병 등에서는 피부 및 점막이 황색을 띤다.

점막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구강, 눈, 코 및 질의 점막을 태양광선 아래에서 잘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점막은 혈액 순환의 상태와 혈액 성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반영시켜 주기 때문이다.

건강한 동물의 점막은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점막이 창백하거나 황색을 띠고 있으며 병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가 발정기에 들어 질점막이 붉게 충혈되고 약간부어 오르는 것은 정상적 생리 현상이다. 피부 색깔의 변화는 동물의 피부색이 백색일 경우 뚜렷이 나타나지만, 피부색이 흑색일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 3. 부종

부종은 조직액이 피부 밑 피하조직에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종이 있는 곳에 지압을 가하면 오목하게 함몰된 자리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종에는 국소에 급성염증이 생겨 붉은색을 띠며 열감이 있고 통증을 느끼며 부어있는 염증성부종, 심장기능에 장애가 일어나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생기는 부종, 흡혈 기생충이 많이 기생하고 있어서 빈혈증에 걸려 생기는 냉성부



종의 3종류가 있다. 한편, 임신말기에 발생하는 유방과 하복부의 부종은 건강에는 별지장이 없는 생리적 부종이라고 할 수 있다.

### 4. 땀흘림

땀은 피부의 한선(땀샘)에서 흘러나오며 체온을 조절한다. 소의 발한 작용은 주로 비경(콧등)에서 이루어 지는데, 한선은 몸 앞부분의 피부에 발달되어 있고, 머리, 흉수, 후구 등에는 희소하며, 유두에는 없다. 병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발한 과다는 주로 폐출현, 폐기종, 폐염 등 식체, 고창증등 통증이 매우 심한질병, 정신 흥분을 일으키는 질병들에서 볼수있다.

위 또는 장과열, 급성 범발성복막염에 있어서는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런 소의 병의 경과는 위태롭다. 또, 말초신경, 교감신경등의 손상과 압박, 뇌척수막염 등에 걸리면 국소적 발한이나 체별의 한쪽에만 땀이나는 편측성 발한을 볼 수 있다.

소의 비경에는 특이한 피지선이 있어서 건강할 때에는 항상 지방질을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는 비경에 윤기가 있지만, 병에 걸

---

**“땀은 피부의 한선(땀샘)에서 흘러나오며 체온을 조절한다. 소의 발한 작용은 주로 비경(콧등)에서 이루어지는데, 한선은 몸 앞부분의 피부에 발달되어 있고, 머리, 흉수, 후구 등에는 희소하며, 유두에는 없다.”**

---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 빗질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피부에 때가 많이 끼어들어 피부염이 생겼거나, 소버짐, 이 모낭충등의 피부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리면 윤기가 없어지고 건조해지므로 비경의 변화를 보아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 5. 가려움증

가려움증이 있는 동물은 가려운 부위를 핥거나 벽등에 비벼대므로 털이 빠져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 빗질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피부에 때가 많이 끼어들어 피부염이 생겼거나, 소버짐, 이 모낭충등의 피부 기생충이 기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6. 기타체표의 이상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상태로는 외상을 입은

후 생긴 화농, 피하 출혈로 생긴 혈종, 농창, 헤르니아(Hemia:탈장)등으로 생겨난 종장(부음) 알레르기(allergy)성 두드러기, 피부형 백혈병으로 생기는 피부발진, 일광 과민증에 걸린 소의 피부균열, 우두(牛痘)에서 유두와 유방의 피부에 생겨나는 수포 및 농포, 유행성 비기(鼻氣) 감염(管炎)에서 생기는 비점막과 비경의 마란(摩爛), Clostridium Chauvvei같은 혐기성 세균의 감염으로 생겨나는 피하기종(피하에 공기가 차있음)등은 모두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낙농육우회보”는 낙농인, 비육우농가의 양축가가 참여하여 만드는 잡지입니다.

지금까지 축산분야에 신명을 바쳐 참여하시는 가운데, 축산발전을 위한 제언, 시정하여야 할 사항, 기타 낙농비육에 관한 모 든 것, 또는 자그마한 일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정리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언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곧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잡지, 낙농육우회보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매수나 마감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탄없는 원고가 전국의 낙농·육우인들의 큰 힘이 되며 동참하는 가운데 낙농육우산업은 항상 발전할 것입니다.